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Control
Strategies and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s

곽혜경**

Kwak, Hae Kyung

조복희***

Cho, Bok He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children's temperament and maternal control strategies were related to the self-control behaviors of 3-year-old children. The sample was comprised of 50 young children, ranging from 37 to 50 months of age, and their mothers. Mothers were asked to complete a questionnaire on children's temperament. Situational observation was conducted for obtaining data on maternal control strategies and for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s in a resistance to temptation situation. All the subjects' activities were videotaped for 20 minutes.

Differences were found in maternal control strategies and children's self-control behaviors by gender of child and by age and education of mothers. Relationships were found between children's temperament and maternal control strategies. However, children's temperament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self-control behaviors through maternal control strategi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self-control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is sample were in a transitional stage.

* 이 논문은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동해대학 보육과 전임강사

***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유아기는 자기의식이 생겨나고 자기의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부모나 다른 사회화 대항자들은 유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규칙이나 약속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신생아기를 지난 어린 영아들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생후 1년쯤 되면 자신과 타인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세 전후가 되면 유아는 자아의식이 제법 뚜렷해지고, 만 3세가 되면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를 갖게 된다.

이와 이 지금까지 유아가 수동적으로 얻었던 기쁨을 스스로의 의지로써 찾는다는 것은 커다란 발전이다. 그러나 유아의 의지에 의한 행동이 항상 환영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아닌 경우에는 어머니나 다른 양육자들에 의해 통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아는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기대에 순응하게 된다.

유아기의 자기통제행동은 심리사회적 발달과정에 대한 문헌들에서 자기규제(self-regulation), 자기조절(self-management), 자기통제(self-control) 등의 용어로 자주 논의 되어왔다(Shoda, Mischel, & Peak, 1990; Wang, 1994).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통제는 만족지연(delay of gratification), 유혹저항(resistance to temptation), 불쾌한 상황에 대한 인내(tolerance of noxious situation)와 성인의 지시에 대한 순응(compliance) 등의 행동유형으로 표현되는데(Bradshaw, Usui, Miyake, Campos, & Campos, 1991; Honig, 1985; Vaughn, Kopp, &

Krakow, 1984), 이 중 유혹저항과 지루한 과제에 대한 인내 및 어머니의 요구에 대한 순응이 3세 전후의 유아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기통제행동이다.

생애초기에 나타나는 자기통제는 이후의 인성 및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Kendall과 Wilcox(1979)는 자기통제란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특성 중의 하나이며, 또한 개인행동의 여러 지 측면을 통해 비교적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고 하였다. Mischel과 Mischel(1983)도 자기통제는 「사실상 인성의 모든 개념의 근본이 되는 인간기능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만족지연이 가능한 유아는 후에 신중하고, 주의집중력이 있고, 분별 고, 겸손하며, 협동적이고, 기지가 있으며, 유능하다든가 하는 긍정적인 성격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Funder & Block, 1989).

우리 나라에서는 1970년대 중반 빼아제의 인식론과 인지발달단계가 소개된 이후 학문적 흐름이 인지발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1983년 Gardner가 IQ신화에 도전장을 내고 그 안 지나치게 지식중심의 단편적인 면에만 치중해 온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 이후 점차 감성교육을 강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이원영, 1996), 최근에는 감성지능을 구성하고 있는 자기조절이나 자기통제의 중요성도 인식하게 되었다.

대표적 감성지능 연구자중 한 사람인 Goleman(1995)은 유아기가 자기통제를 비롯한 감성적 성향의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라 하였다. 그는 생후 3-4세에 감성적인 학습이 그 어느 보다

빨리 이루어지며, 유아기에 획득한 습관은 신경 구조의 기본적인 신경세포망에 고정되어 인생후 반기에 이르면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기통제의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Kopp(1982)는 자기통제란 아동기에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유아초기부터 아동기에 이르는 발달과정을 거쳐 행동을 자발적으로 모니터하고 수정하는 능력이 점진적으로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우선 처음에는 적절한 행동기준을 어렵듯이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의식하는 일이 가능해지면, 그러한 기준에 맞게 행동할 것을 어른이 요구하거나 명령하면 따르게 되고, 마침내는 그 기준을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더라도 자신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Kopp(1982)는 비록 진보된 형태의 자기통제는 36개월경에 출현하나, 어머니의 지시에 대하여 반응할 때 행동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실례들이 생후 9개월 정도면 이미 관찰된다고 주장하였다. 유아는 대체로 2세 전후가 되면, 표상적 사고가 발달하기 때문에 양육자가 보이지 않더라도 양육자의 의도를 상기하여 그것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Vaughn등(1984)의 연구에서는 생후 2-3년 안에 자기통제의 개인차가 출현하고 굳어진다는 결과를 얻었다. 자기통제의 개인차를 이해할 때에는 기질이라는 내적 요인이 내재적인 성향을 결정하는 측면과 사회화라는 외적요인이 그 내재적 성향을 심화시키거나 극소화시킬 수 있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Kagan(1994)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개별 유아의 자기통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 주었으며, Kochanska와 Aksan(1995)은 이러한 개인차를 만들어 내는 초기 사회화와 관련된 변인들 중 하나로 어머니의 통제를 들고 있다.

영유아의 어머니는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의 발달에 기초를 제공하며, 특히 이때 어머니가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통제하는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아의 자기통제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머니의 외적통제는 유아에게 내면화되어 자기통제행동으로 발전하게 되며, 자기통제행동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아동은 그러한 행동에 익숙해지게 되고, 나아가 일종의 습관이 된다. 일단 어떤 행동이 습관화 되면 유아들은 그 행동을 수행할 때 통제와 집중을 덜 하게 된다. 전에는 통제가 필요했던 행동들이 점차 무의식적인 반응이 되어서 의도적인 통제를 요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Wang(1994)은 자기통제의 발달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는데, 한편으로는 자기통제된 행동이 무의식적 행동으로 변화하며, 동시에 자기통제적 경향의 패턴이 개인행동의 다른 측면으로까지 일반화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자기통제란 비록 기질에 의해 내재적인 성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부의 학자들은 생래적인 능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외부로부터 내부로」 발달해 가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므로 책임 있는 성인들이 유아의 자아기능을 대행하여 유아의 행동을 통제 또는 규제해 주어, 스스로 그러한 통제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모가 사회적으로 적합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또는 그와 관련된 훈육을 실시함으로써 유아는 스스로가 환경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동시에 자신의 지나친 시도에 대한 주위의 비난도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이 둘간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Goleman(1995)도 어머니가 자녀의 욕구에 얼마나 신뢰롭고 조율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또는 유아 스스로가 자신의 고통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거나 감정이입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히 지도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아의 요구를 무시하여 어머니

가 자기주장만 내세우거나 혹은 무관심하거나, 심하게는 학대하고 잔혹한 훈육을 감행하는 것은 자기통제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관계란 일방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은 부모의 훈육에 의해 영향을 받고 또한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개인적인 특질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Wenar(1990)도 유아의 자기통제를 촉진하거나 침해하는 조건들에 대하여 언급할 때에는 그 인과관계를 양방적 시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우 자기통제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후기나 청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정영숙, 1994; 허수경, 1996)와 유아기 후기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통제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김민정, 1988; 이경남, 1996)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고, 저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제로 모자가 상호작용할 때 유아가 보인 일탈행동에 대하여 어머니가 어떠한 통제를 가하며, 유아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직접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어머니의 통제양식과 아동의 반응을 각기 다른 경로를 통해 측정된 연구들이 있을 뿐이다(김윤희, 1991; 이미원, 1994).

자기통제가 출현하고 굳어지기 시작하는 결정적 시기에 외적 통제자로서의 부모의 통제책략은 자기통제의 발달과 나아가 양심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영유아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자녀가 일탈행동을 보일 때 실제로 어떠한 통제책략을 사용하며, 그러한 통제책략은 어떠한 맥락에서 형성되는지, 또한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3세 유아와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혹저항상황에서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이라는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본 후,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기질이 그러한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후의 사회적 능력의 잠재적 지표로서 영유아기 아동의 자기통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 자기통제 및 자기규제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가 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3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발달적 경향을 알아보고,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관계에 유아의 기질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 및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정의

1) 아동의 기질

기질이란 심리생물학적 특질을 외현적으로 반영하는 반응양식 및 그 반응양식을 조절하는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말한다. 여기서 기질의 기초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반응양식이란 심리생물학적 특성을 외부로 반영하는 통로로서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의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반응양식을 조절하는 과정이란 반응을 강화 혹은 억

제하는 과정으로 적응성과 생리적 규칙성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었다.

2) 어머니의 통제책략

유아의 일탈행동에 대하여 어머니가 어떠한 통제를 가하는가를 통제책략이라 정의하였다. 실험 상황에서 유아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금지된 놀잇감을 쳐다보거나, 손으로 가리키거나, 놀잇감에 대하여 이야기하거나, 또는 놀잇감이 가까이 가려고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 만지거나 하는 등의 일탈행동을 보일 때, 혹은 선행된 어머니의 통제와 관련하여 유아가 일탈행동을 보일 때 어머니가 취한 언어적 반응을 말한다. 어머니의 통제책략은 유아에게 심리적 압력을 얼마나 행사하는가에 따라 다음과 같은 6가지 행동유형으로 분류되었다.

- a. 단호한 제한 : 설명이나 근거제시 또는 협상을 하기보다는 분명하고 단호한 언어 사용으로 제한을 표명한다.
- b. 조건부 제한 : 자녀가 어머니의 요구를 따를 경우 그것에 대한 보상 등을 약속한다. 보상이 선택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 c. 설득 : 명시적으로 요구에 따를 것을 강요하지는 않으나, 질문하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시사를 하는 등 유아에게 해야 할 행동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일정기간 동안만 혹은 일부만 허용하는 등 일부 양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d. 주의전환 : 직접적인 과제수행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어머니가 과제수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아의 주의를 전환시키는 말을 한다. 유아가 금지된 놀잇감에 대하여 흥미를 보일 때 유아의 관심을 놀잇감으로부터 과제로 전환시키려고 유도한다. 단, 유아가 과

제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거나 설명 및 동의를 구할 때 어머니가 과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e. 단순서술 : 유아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말을 하거나, 유아가 한 말에 대하여 동의한다. 유아의 감정이나 기분을 고려한 말이나 유아의 감정, 심리적 상태에 대하여 서술하는 것도 포함된다.
- f. 용인 : 제한이나 설명은 전혀 하지 않고 유아가 하는 대로 내버려둔다. 유아의 행동을 보고는 있으나 전면적인 용인을 하는 경우와 유아의 행동을 보고 있지 않아서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는 무관심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단호한 제한, 조건부 제한, 설득, 주의전환은 통제로 분류되며, 단순서술과 용인은 무통제로 분류된다. 단호한 제한은 심리적 압력이 가장 강한 경우이며, 용인은 심리적 압력이 가장 약한 경우이다. 무통제로 분류되는 단순서술과 용인은 본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되었다.

3) 유아의 자기통제행동

자기통제란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표적행동과 그 표적행동의 실행을 방해하는 요인이 있을 때, 방해요인의 영향을 제어하고 표적행동을 실행하도록 자신을 규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혹저항상황에서 매력적인 놀잇감을 만지고 싶은 유혹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지루한 과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고 해내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를 자기통제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 a. 유혹저항 : 금지된 놀잇감을 처음으로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
- b. 과제인내 : 실제로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대 보낸 시간
c. 순응 : 어머니의 통제에 대하여 현재 실행하고 있는 행동을 중단하거나, 어머니의

통제에서 요구된 행동을 그대로 실행한 비율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 거주하는 중상류가정의 3세 유아 50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을 모집하기 위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3세 유아의 어머니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원자들은 전화예약을 거쳐 개별적으로 실험실을 방문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지원자를 선정한 시기와 실제로 실험이 실시된 시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대상 유아의 실제 연령은 37개월에서 50개월의 분포를 보이며, 유아의 성비는 남자 29명, 여자 21명으로 구성되었다.

2. 측정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실 상황의 관찰을 실시하였다.

1) 유아의 기질 척도

유아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천희영(1993)의 아동용 기질평정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만 3세에서 7세까지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반응양식을 측정하는 활동성, 반응성, 정서성 요인과 반응양식의 조절 과정을 측정하는 적응성, 생리적 규칙성 요인의

5개 기질구성차원에 따른 3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자는 유아의 어머니이며,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은 Likert식 4점 척도이다.

2) 관찰

관찰방법은 우스이히로시(臼井博, 1988)와 Bradshaw 등(1991)이 유혹저항장면에서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행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을 토대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연구의 관찰상황은 다음과 같다.

네모난 방의 중앙에 카펫을 깔고, 낮은 테이블과 어린이용 의자를 준비한다. 책상 위에는 도화지 3장과 3자루의 크레용을 준비해 둔다. 어머니는 어린이로부터 1.5m 떨어진 뒤쪽 벽면에 놓인 의자에 앉는다. 나머지 세 면에는 유아의 시선이 잘 닿을 수 있는 높이에 '금지된 놀잇감'을 한 개씩 놓아둔다. '금지된 놀잇감'으로는 노래하는 새, 지하철 놀이, 손인형을 사용한다. 어머니에게 연구자가 돌아와 유아와 놀아줄 때까지 약 20분 동안 유아가 놀잇감 근처에 가거나 놀잇감을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하라고 사전에 지시한다. 유아에게는 관찰자가 돌아올 때까지 의자에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라고 이야기한다. 유아에게 설명을 마친 후 관찰자는 20분간 방을 떠난다.

관찰상황이 끝난 후 관찰자는 유아에게 놀이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금지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관찰대상 유아는 관찰

자와 금지된 놀잇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동안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 및 유아의 기질을 알아 보기 위하여 어머니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관찰상황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하여 40회의 관찰회기로 나누어 시간표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각 관찰회기마다 유아가 일탈행동을 보였는지, 어머니는 그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책략을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통제에 대하여 유아가 순응하였는지를 기록하였다. 한 관찰회기 내에 여러 가지 통제책략이 같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심리적 압력이 강한 통제책략을 채택하였다. 초시계를 이용하여 유아가 금지된 놀잇감을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과 과제를 수행한 시간도 함께 측정하였다.

관찰측정의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유아-어머니 50쌍 중 10쌍을 무선적으로 선정하여 비디오로 녹화된 언어적 상호작용의 내용을 전사하였으며, 녹화된 내용과 전사된 내용을

기초로 아동학 전공자 2명이 언어적 상호작용의 분석을 위한 토론과 연습을 거쳐 행동유형을 평정하였다. 두 관찰자의 평정간의 일치도는 92%였다.

3. 자료분석

자료는 SPSS/PC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유아의 기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기질차원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통제책략 그리고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빈도와 비율을 산출하였으며,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각 변인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값과 F값을 산출하였다.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 및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통제책략 및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전반적 경향

1) 유아의 기질의 전반적 경향

먼저 연구대상 유아의 기질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면, 4점척도로 측정된 하위차원별 환산점수의 평균이 모두 2.50이상으로 나타나, 외현적 반응양식이 대체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반응양식의 조절과정도 원만한 편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 기질차원별로 남녀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2) 어머니의 통제책략의 전반적 경향

연구대상유아들은 전체 40회의 관찰회기 중에서 평균 68%의 관찰회기에 일탈행동을 보였으며,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유아가 제공한 일탈행동 중 평균 54%의 일탈행동에 대하여 통제를 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암전하고 순응적인데 비해 남아는 활동적이고 비순응적이기 때문에 남아에게 더 통제적일 것이라는 통념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일방적 검증을 실시한 결과, 남아에게는 평균 .59, 여아에게는 .45의 통제율을 보여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더 통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2.10, p<.05$).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아보다 남아에게 통제를 더 많이 한다는 우스이히로시(宇井博, 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대상 어머니들이 어떠한 언어적 통제책략을 많이 사용하였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가 제공한 일탈행동의 빈도에 대한 각 언어적 통제책략의 사용빈도를 언어적 통제책략의 사용률로 산출하였다. 중앙값을 살펴보면, 단호한 제한이 .09, 조건부 제한이 .00, 설득이 .20, 주의전환이 .12로,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전반적으로 자녀의 일탈행동을 통제할 때 설득을 사용하는 비율이 다른 책략의 사용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조건부제한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연령에 따른 통제책략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값을 산출한 결과, 통제율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언어적 통제책략의 사용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어, 어머니의 연령이 높은 집단이 조건부제한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62, p<.05$).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이 통제를 더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고졸이하의 어머니가 평균 .60의 통제율을 보인데 비해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는 평균 .49의 통제율을 보여,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가 높은 어머니보다 통제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1.75, p<.05$). 그러나 언어적 통제책략의 사용률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전반적 경향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유혹저항, 과제인내, 순응의 세 가지 유형의 행동을 분석하였다. 유아가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놀잇감을 처음으로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놀잇감을 전혀 만지지 않은 유아가 27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놀잇감을 만질 때까지 5분도 채 걸

리지 않은 유아는 13명으로 26%를 차지하였다. 유혹저항능력이 뛰어난 유아와 그렇지 못한 유아로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0회의 관찰 회기 중 놀잇감을 한번도 쳐다보지 않은 유아는 아무도 없었으므로, 여기서 놀잇감을 만지지 않은 유아는 놀잇감을 쳐다보는 하였으나 만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혹에 대하여 저항하는 능력이 높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대상 유아가 지루한 과제를 참고 해내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로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린 시간을 측정하였다. 평균 과제종사시간은 5분41초, 표준편차는 3분17초였고, 짧게는 19초밖에 안 되는 유아도 있었으며, 길게는 14분 7초나 그림을 그린 유아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 유아가 어머니의 통제에 대하여 얼마나 순응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어머니의 통제빈도에 대한 유아의 순응빈도를 사용률로 산출하였다. 유아의 순응률은 평균 .73, 표준편차 .21로, 어머니의 통제에 대체로 순응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자기통제행동의 차이를 t 검증하였으나, 유혹저항과 과제인내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금지된 놀잇감을 만진 횟수는 여아가 더 많았지만, 처음으로 놀잇감을 만질 때까지 걸린 시간이나 과제종사시간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우스이히로시(宇井博, 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유아의 성별에 따른 순응률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보다 여아가 더 순응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t=-2.06, p<.05$).

2.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의 관계

어머니의 통제책략은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상관관계 N=50

	유혹저항	과제인내	순 용
단호한 제한	.26*	.15	-.10
조건부 제한	-.19	.04	.09
설 득	.22	.01	-.09
주의 전환	.17	.42**	.42*

* p<.05, ** p<.01

<표 1>과 같이 유혹저항은 단호한 제한과 낮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p<.05) 어머니가 단호한 제한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유아에 유혹에 저항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의 관심을 금지된 놀잇감으로부터 과제로 이끌고자 하는 주의전환은 과제인내 및 순용과 보통정도의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p<.01, .05) 어머니가 주의전환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유아가 과제에 종사한 시간이 길며, 어머니의 통제에 대하여 더 잘 순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유아의 기질이 어머니의 통제책략 및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통제책략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통제책략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질차원별 점수와 각각의 언어적 통제책략의 사용률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아의 기질차원 중에서 생리적 규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단호한 제한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p<.01). 적응성과 설득은 약한 정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p<.05), 유아의 적응성이 높을수록 어머니가 설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활동성과 주의전환도 약한 부적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p<.05), 활동성이 높은 유아에게는 어머니가 주의

<표 2> 기질과 언어적 통제책략 사용률과의 상관관계 N=50

기질차원	언어적 통제책략의 사용률			
	단호한 제한	조건부 제한	설 득	주의 전환
활동성	.19	.01	.15	-.31*
반응성	.10	.00	-.05	-.09
정서성	-.14	-.13	.00	-.00
적응성	-.22	-.20	.30*	-.20
규칙성	-.41**	-.03	.07	.14

* p<.05, ** p<.01

전환을 적게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머니가 유아의 적응성이나 규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기통제의 소재를 외적인데 두기보다는 내적인데 두고 유아에게 심리적 압력을 덜 행사하며, 반대로 유아의 활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주의전환과 같은 심리적 압력이 약한 통제책략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

유아의 기질과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혹저항, 과제인내, 순용과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기질은 유혹저항 및 순용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과제인내와 낮은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과제종사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31, p<.05). 본 실험상황에서는 어머니의 외적 통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유혹저항행동과는 직접적인 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여기에서는 앞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며, 그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대상 유아는 자기통제 발달의 과도기적 단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대상 유아의 절반이상이 금지된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는 하였으나 실제로 만지지는 않았다.

둘째, 유아의 성별, 어머니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어머니는 유아의 성별에 따라 기질에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아에게보다 남아에게 더 통제적이었다. 또한 나이가 많은 어머니들이 적은 어머니들보다 조건부 제한을 더 많이 사용하였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이 전반적으로 통제를 더 많이 하였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라 자기통제행동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가 남아에 비해 더 순응적이었다.

셋째, 어머니의 통제책략은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 관계가 있었다. 어머니가 단호한 제한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유아는 유혹에 저항하는 정도가 높고, 주의전환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유아는 과제를 더 오랫동안 수행하며, 어머니의 통제에 대하여 더 순응적이었다.

넷째, 유아의 기질은 유아와 어머니의 통제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기질에 따라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책략이 달라졌다. 어머니는 유아의 적응성이 낮을수록 설득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규칙성이 높을수록 단호한 제한을 적게 사용하였고, 활동성이 높을수록 주의전환을 적게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통제행동과의 관계에서는 활동성이 높을수록 과

제인내가 낮았을 뿐 유혹저항이나 순응과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었다. 유아의 기질이 금지된 놀잇감에 대한 흥미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어머니의 통제가 개입된 자기통제행동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실험상황에서는 유아의 기질이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와 어머니의 통제책략을 매개변인으로 유혹저항이나 순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어머니의 외적통제가 개입된 유혹저항상황에서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어머니의 통제책략으로, 유아의 기질은 어머니의 통제책략을 매개로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찰상황이 어머니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라는 외적 통제가 없는 상황에서는 유아의 기질변인이 자기통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3세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어머니의 통제행동에 대하여 자녀가 반응한다는 일방적인 상호작용의 개념을 넘어서, 자녀의 성별, 기질적 특성 등의 유아측 변인에 따라 어머니의 통제책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호혜적 관계를 입증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연구대상이 중상류 가정의 유아와 어머니 쌍으로 국한되어 표집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기질측정에 있어 질문지에 반응하는 사람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유아의 기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실험상황은 어머니의 외적통제의 개입을 전제로 한 유아의 자기통제행동을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으므로

외적통제의 개입이 배제된 상황에서의 자기통제 행동에 관한 연구도 초기의 자기통제행동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민정 (1988). 정서상태의 회상이 5세 유아의 만족 지연행동 선택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1991). 어머니의 언어적 통제유형과 욕구좌절상황에서의 아동행동특성과의 관계.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경님 (1996). 인지적-행동적 자기통제훈련이 아동의 자기통제능력, 과제수행능력 및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에 미치는 효과,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미원 (1994). 부모의 통제양식에 대한 자녀의 반응. 순천향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원영 (1996). 우리 나라 영유아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의 감성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 학술발표자료.
- 정영숙 (1994).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자기통제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 (1993). 한국 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수경 (1996). 인지양식유형과 보상의 제시형태에 따른 아동의 만족지연능력 발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스이히로시(臼井博) (1988). 유희-저항장면에서의 어머니의 통제전략과 그에 대한 아동의 반응, 정서의 사회화와 행동억제기능의 발달에 관한 일비교연구(과학연구비보조금 총합연구A 연구성과보고서, 연구대표자, 미야게가즈오), 53-77. 북해도대학 교육학부.
- Bradshaw, D. L., Usui, H., Miyake, K., Campos, R. G., & Campos, J. J. (1991).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maternal control communication and compliance. In M. Bullock(ed), *The development of intentional action, cognitive, motivational, and interactive processes*, 55-68. Basel: Karger.
- Funder, D. C., & Block, J. (1989). The role of ego-control, ego-resiliency, and IQ in delay of gratification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41-1050.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황태호 역 (1996), 감성지능. 서울:비전 코리아.
- Honig, A. S. (1985). Compliance, control, and discipline. *Young Children*, 40, 50-58.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New York: Basic Books.
- Kendall, P. C., & Wilcox, L. E. (1979). Self-control in children: Development of a rating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1020-1029.
- Kochanska, G., & Aksan, N. (1995). Mother-child mutually positive affect, the quality of child compliance to requests and prohibitions, and maternal controls as correlates of early internalization. *Child Development*, 66, 236-254.
- Kopp, C. (1982). Antecedents of self-regulat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199-214.
- Kuczynski, L. (1984). Socializationgoals and mother-child interactions: Strategies for long-term and short-term 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61-1073.

- Mischel, W. (1981). *Introduction to personality*. (3rd Ed.)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Mischel, W., & Mischel, H. N. (198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knowledge of self-control strategies. *Child Development*, 54, 603-619.
- Shoda, Y., Mischel, W., & Peake, P. K. (1990). Predicting adolescent cognitive and self-regulatory competencies from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Identifying diagnostic condi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6, 978-986.
- Vaughn, B. E., Kopp, C. B., & Krakow, J. B. (1984). The emergence and consolidation of self-control from eighteen to thirty months of age: Normative trends and individual differences. *Child Development*, 55, 990-1004.
- Wang, A. (1994). Motivation, stress, self-control ability and self-control behavior among young children. The University of Nebraska, Doctoral dissertation.
- Wenar, C. (1990). Self-control. In R. M. Thomas(Ed.), *The encyclopedia of human development and education*. Oxford: Pergamon Press